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지진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큰 한해였다. 그러나 큰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지난해 담임한 우리 학급에 일본 쓰나미로 전입을 해온 쌍둥이 아이들이 있다. 부모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3월 대지진으로 먹거리를 구하기 힘들어 세 식구를 한국에 보내고 현재 아버지만 일본에 남아 사업체를 운영하며 양국을 오가고 있다.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아빠를 그리워하며 효성심과 가족 사랑의 마음들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난은 새로운 희망을 낳는다.”는 말이 실감났다.

일하는 기쁨이 충만한 해

이 한 해는 일하는 기쁨이 충만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황연옥 칼럼

시인, 교사



새해를 맞이하며

사람은 일을 통해 꿈을 이루고 재능을 발휘하며, 소득이나 성취감을 얻어 자아만족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쁨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그 일을 충실하게 해 냈을 때의 결과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체면이나 사회적 가치, 지나친 보수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곳엔 긴장과 스트레스 뿐, 일하는 참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생명 같은 생의 한 토막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신이 좋아 하는 일을 찾아 성실한 구슬땀을 흘리며 진지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신나는 세상의 모습이다. 이 한 해는 소망의 결실과 나눔이 가득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실이 없으면

허탈하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수요일 다 공급이 많아 땀 흘려 가꾼 곡식들이 논밭에서 썩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공장에서 자본을 들여 만든 부품들이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들도 없었으면 좋겠다. 오랜 세월을 절약하며 알뜰하게 살았는데 자녀들이 컸는데도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적었으면 좋겠다.

소망의 결실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해

직장의 리더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직원들을 배려하고 재능이나 잠재된 창의력을 이끌어 내어주고 복지나 삶의 문제를 배려해 주어, 일터마다 풍요로운 웃음소리가 가득해 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풍요로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도 받고, 그 대가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출해 가는, 멋진 순환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새해 벽두에 간절히 기원한다.

독/자/투/고

간성시장조합 상인들 변해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간성시장은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전통 시장이었다.

작은 시장이었지만 꿈과 희망이 넘실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붐비던 재래시장은 언제부턴가 을씨년스럽고 친바람만 훑하니 부는 황량한 시장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전국적으로 몰아친 경기불황이라고 하기엔 그 여파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것은 비단 간성시장만의 문제는 아닌듯하다. 쇼핑문화의 주축이 노인층에서 신세대층으로 바뀌면서 편리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소비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간성시장만 하더라도 인구가 7,500명 밖에 안되는 읍단위 소도읍에 위치해 있다. 이런 곳에 대형매장의 규모를 갖춘 농협 하나로 마트가 전통시장의 문턱에 건립되어 개장된 후 시장을 공략하면서부터 상권기는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도시의 아파트단지 1개 밖에 안되는 인구수기에 더욱 그러하다.

재래시장상인들은 상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하나 둘 시장을 떠나고 있으며 지금은 많은 점포들이 비어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지역은 접경지역이자 군부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은 군인가족들이 계속해서 하나 둘 속초지역으로 주거지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 또한 최악의 불경기로 인하여 먹고 살길이 막연하여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점포들 비어 있는 실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불경기에 인구유출을 강건너 불보듯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정말 마음이 답답할 노릇이다. 상인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군 통합문제의 관련설 또한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고성군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출마할 때마다

경제를 살리겠노라 외쳐대셨지만 무슨 인구가 있어야 장사가 되든 말든 할 것이 아닌가?

지금 식당가와 상인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하루 빨리 세심하게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내실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쳐주길 상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개선을 위해 수년전부터 비가림 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고객유치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간성전통시장도 비가림 시설 및 공중화장실, 전통시장 주차장 개설 등 시장 활성화사업을 지원받았다. 최근 시급한 사업으로 경영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공동마케팅사업, 시장컨설팅 및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시장 매니저 채용 등 실천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이제 우리 간성시장의 개선점은 첫째로 상인조직 역량강화에 있다고 본다. 특히 지금까지 상인회원과 임원진과의 비협조적 관행을 이제 버려야 한다. 상인 각

자가 의식을 개혁하고 시장 내에 교육공간을 만들어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면서 문제점을 캐내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책임자가 신바람이 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단합과 협조로 활로 모색하자

또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받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으로 2012년 1월부터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방침이며 시장이 융 고객에게는 특별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했다. 우리 간성시장조합도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마트로 가는 고객들의 발길을 그나마 시장으로 돌리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고 본다.

중소기업청은 2012년도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매니저를 채용한 시장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회에 우리시장도 시장발전

보다 활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인을 채용하여야 한다. 매니저의 역할은 시장 마케팅과 컨설팅 등 각종 쿠폰, 상품권 개발, 각종 이벤트 행사를 설계하며 시장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전문설계사 등이다.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간성시장조합 상인회 여러분! 단합과 협조로서 전통시장의 활로를 모색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변화되고 활기 넘치는 간성시장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럼 또조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열 (전간성시장조합 상인회 총무)

겨울철 기후특성, 통고지설(通高之雪)

우리지역의 날씨를 나타내는 말로 ‘양강·양간지풍(襄江·襄杆之風), 통고지설(通高之雪)’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강원도 양양-강릉, 양양-간성 사이는 봄철 바람이 많이 불고 통천과 고성은 겨

울철 눈이 많이 오는 것으로 생긴 말이다.

겨울철 기후특성인 통고지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통천은 현재 북한에 속해 남쪽으로는 고성군이 접하고 북쪽과 동쪽으로

는 동해바다가 면해 있다. 특히 통천 근해는 난류인 동한해류와 한류인 북한해류가 흘러 봄, 가을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많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영동지방의

겨울철 대설은 차고 습한 북동풍이 태백산맥으로 강제 상승되며 오는 현상으로 같은 영동지방에서도 기압계와 지형에 따라 강설의 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왜 통천과 고성지역은 겨울철 눈이 많이 오는 것일까?

지금과 같이 남북이 분단된 상황 때문에 이 지역의 상세한 강설

특징을 조사하기에 어려움은 있으나, 원산만을 끼고 있는 통천군은 다른 동해안 지역과 달리 동쪽 뿐만 아니라 북쪽에도 바다가 위치해 겨울철 찬 북서~북동풍의 바람이 불 경우 쌓이는 강설량과 그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히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히늘처럼 (속초기상대 제공)